

퀴즈 시험을 볼 때는 허겁지겁 준비하느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그냥 "이 명령어가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하고

이해보다는 급하게 외워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서 nrow가 number of row, ncol가 number of columns 등

각각 열의 수를 지정해주고 행의 수를 지정해주는 것처럼

명령어들의 뜻을 자세하게 하나한 찾아보고 다시 복습하니 명령어들의 의미와 기능의 관계가 크게 와닿아서

머리에 쉽게 각인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행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면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공부를 해보면서

$A[m, n]$ 이라는 표현식이 A 의 m 번째 행의 n 번째 열의 요소를 볼 수 있는 명령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m 행의 전체를 보고 싶으면 $A[m,]$ n 열의 전체를 보고 싶으면 $A[, n]$ 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이를 응용해서 행과 열에 dimnames를 통해서 이름(ex row1,2,3 col1,2,3 등을 붙였다면)

$A["row2", "col3"]$ 으로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구글 번역기로 해석을 해서 읽는 수준이었는데

row와 column이 각각 열과 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보는 등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면서

5회 이상 계속 읽으니까 영어로도 쉽게 읽히는 내 모습을 보고 "이래서 반복학습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또 영어라고 하면 공포심이 들어 접하기가 싫었는데 번역기의 힘을 빌리면 해석이 생각보다 수월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공포심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해외 자료도 많이 참고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나는 R언어를 공부할 때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통계 분석 방법들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부한 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는 사람이 되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외 참고 문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나에게 큰 희망을 주신 심재창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